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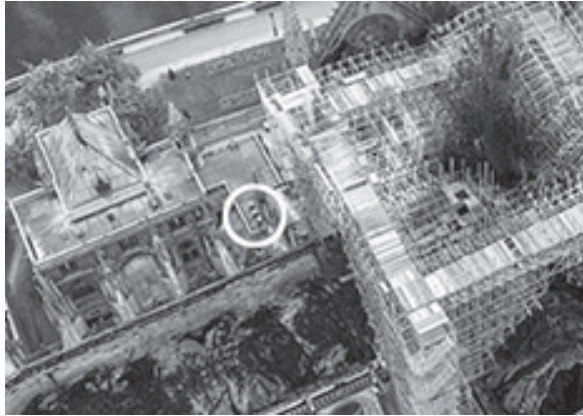
# 화마가 휩쓴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에서 살아남은 꿀벌

지난 15일 화재로 인해 첨탑이 붕괴된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에서 살고 있던 20만 마리의 벌들이 화염 속에서도 살아남아 화제가 되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양봉가 니콜라스 제앙(51)에 따르면 성당 지붕에는 3개의 벌통에 약 20만 마리의 벌이 살고 있었다. 이 벌집들은 지난 2013년 파리의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감소한 벌의 개체수를 다시 늘리기 위해 파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비롯해 오르세 미술관, 그랑 팔레 박물관, 파리 국립 오페라 등 도시 곳곳의 지붕에 벌집을 설치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에 있던 벌집에서는 매년 평균 25kg 가량의 꿀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꿀은 대부분 성당에서 소비된다. 또 벌들에게서 얻은 밀랍으로 촛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제앙은 벌들도 화재로부터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꿀벌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소방당국은 지붕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제앙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화재 후 공중에서 찍은 성당 사진들을 수집했다.



▲ 화마를 피해 살아남은 벌통 3개작은 원가 담긴 항공사진

그는 “하늘에서 본 노트르담 대성당은 끔찍했다. 모든 게 타버렸고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사진으로 볼 때 희미하게나마 벌집 세 개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18일 제앙은 드디어 벌집에 있던 20만 마리의 벌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제앙은 “도시의 지붕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교외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살아남은 벌들과 함께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된 청년의 반전 스토리



일리노이주 카호키아경찰서의 로저 제물스 경관(오른쪽)은 지난 17일 변호관이 만료된 자동차를 불러세웠다. 제물스 경관은 운전자의 면허 만료 기간이 지나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운전자 카손 볼드윈(22·왼쪽)은 취업 면접에 가는 길이었다. 제물스 경관은 볼드윈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듣고 단속 후 그를 면접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볼드윈은 취업에 성공했다.

볼드윈은 “일자리가 없어 두 살 된 딸 양육비도 부족했다. 어렵게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면허가 만료돼 고민하다 길을 나섰다. 경찰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 차가 견인될까,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면접 기회는 이대로 날리게 되는 건가 걱정했다.”면서 “그러나 제물스 경관은 내 잘못에 대해 벌은 주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 그 덕에 두 살난 딸의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물스 경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면접을 마친 볼드윈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과 면허증을 갱신하고 새 차를 구입하고 딸을 양육할 수 있는 직업을 얻었다. 이 훈훈한 이야기는 카호키아 시장의 보좌관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카호키아 시장 커티스 맥콜은 “법은 법대로 처리하되 청년을 위해 면접장까지 이동한 제물스 경관의 뛰어난 의사 결정과 판단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맥콜 시장은 “지역 경찰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다.”며 취업에 성공해 딸 양육비를 벌 수 있게 된 볼드윈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결혼 상대, 알고 보니 한날 한 병원에서 출생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남녀가 18년 후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됐다. 그 주인공은 쇼나 그레이시와 톰 맥과이어.



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다.”며 “나는 맥과이어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저 친구일 뿐이었고 우리가 함께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992년 12월 22일, 잉글랜드 그레이터맨체스터 위건의 한 병원에서 몇 시간 차로 태어났다. 그리고 18년 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그레이시에 게 첫눈에 반한 맥과이어는 몇 달간 애정공세를 펼쳤고 2011년 봄 연인이 됐다.



연애를 시작한 후 두 사람은 평생 5km도 떨어지지 않은 한 동네에 살며 학교를 다닌 사실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레이시는 “우리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며 “우리의 우연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맥과이어는 “나는 그레이시를 보고 운명적 끌림을 느꼈지만 그녀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 나중에는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시는 “처음부터 맥과이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했

두 사람은 비록 자신들이 태어난 병원이 얼마 전 문을 닫았지만, 평생을 사랑하며 살다 죽음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들은 5월 4일 결혼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고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